

광주은행 내부승진 행장 선임이 민영화 첫걸음

차기행장 공모 마감 12명 신청...낙하산 인사 반대 목소리 고조

광주은행 차기 행장 공모에 12명이 응모한 가운데 새 광주은행장은 내부 승진자가 돼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2명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조억헌 부행장과 김장학 부사장이 각각 1명씩, 최영하 광주은행 전 상무, 변정섭 전 광주은행 부행장 등 모두 12명이 지원했다. 특히 현 김장

학 우리금융 부사장이 공모에 나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내부출신 승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으로 인해 내부 행장 출신을 우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은행 본리매각을 앞두고 우리금융지주사 출신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동안 지역어른은 지난 1968년 문을 연 후 45년 동안 광주은행 출신이 단 한차례도 은행장에 오른 적이 없

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내부 승진자가 은행장에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광주은행과 함께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경남은행은 5대 김형영 행장과 6대 이춘영 행장 등 내부 출신 행장을 배출했고, 대구은행은 6대 홍희희 행장만 외부 출신일 뿐 40년 동안 외부인사 행장이 없다. 부산은행도 자행 출신은 행장이 대세다.

따라서 이를 지켜보는 광주은행은 물론이고 지역민과 상공인들, 시민단



조억헌 부행장 김장학 부사장

체들도 광주은행 민영화 추진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부승진자 행장이 나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경제계, 시민단체 모두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것

은 광주은행 민영화의 첫 걸음이 차기 행장 선임이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라 지역정서와 강하게 밀착돼 있다. 외부인사가 선임됐을 경우 지역민심을 파악하고 상공인 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내부승진자는 이러한 시간을 줄여 선임 후 곧바로 지역민, 경제계 광주은행 임직원의 총의를 모아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 광주은행장의 윤곽은 오는 3일 면접 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조장협의회 어린이재단에 장학금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장들로 구성된 조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실시한 '2013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영 본부장과 조규종 광주후원회장, 후원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아차에서는 그동안 후원활동을 펼쳐온 광주공장 조장협의회 김재주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조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인

재 양생 장학금 65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조장협의회 1년 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기꺼이 후원했다고 협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재주 조장협의회 회장은 "기아차는 과거 어려울 때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아이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그 동안 지역민이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택 취득세 항구적 인하 검토 착수

정부가 이번 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율이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최고 4배나 많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주택가액, 다주택여부에 따라 1~2% 포인트씩 내렸지만 올해 7월부터 세율이 원상회복하면서 '거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예산기준 13조8202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하할 경우 우 가득이나 좋지않은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행부는 "취득세가 높다고 하지만 거래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높은 편이 아니다.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다"며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필뉴스>

5월 광공업 생산 광주 늘고 전남 줄어

5월 중 광공업 생산이 광주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고 전남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5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증가하고 전남보다는 3.8% 감소했다.

전기장비(-13.6%), 탕배(-13.4%), 1차금속(-7.1%) 등은 감소하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76.9%), 자동차(5.7%), 기계장비(11.5%) 등에서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 전달보다 1.9% 감소를, 재고는 각각 6.4% 증가와 1.4% 감소를 기록했다.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9(201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하고 전달보다 10.3%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증가, 전달보다 7.6% 증가를 보였고 대형마트 판매는 각각 3.3% 감소, 12.8% 증가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의 5월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8.0%), 음료(24.3%) 등에서 증가하고 기타운송장비(-36.3%), 기계장비(-14.4%), 석유정제(-1.9%), 고무 및 플라스틱(-8.6%) 등에서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줄었고 전달보다는 6.9% 늘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 전달보다 7.1% 증가를,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감소, 전달보다 1.3% 감소를 각각 나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민형중 조달청장 내광 오늘 조달업체 간담회

민형중(53) 조달청장이 1일 광주주지방조달청을 방문해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조달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공공관료 확대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 등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강연대 광주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민 청장은 영암 출신으로, 조달청 차장과 서울지방조달청장 등을 거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상 하나뿐인 너만의 신발

지난 3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열린 탐스의 'STYLE YOUR TOMS' 행사에 참여 자신의 신발에 독특한 디자인을 그려 넣은 작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틀간 열린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뤘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건설·조선·철강·유화 업종 '먹구름' 하반기 산업 기상도...정보통신·기계만 맑음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특히 건설, 조선, 철강, 유화 업종은 '먹구름' 날이 많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개 업종별다체와 함께 '하반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기계업종은 '맑음'으로, 자동차·섬유업종은 '구름조금'으로, 정유·석유화학·철강·조선·건설업종은 '흐림'으로 각각 예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 전망이 좋은 업종은 기계(구름조금→맑음), 자동차, 섬유·의류(구름→구름조금) 등이다.

정보통신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장 쾌청한 업종으로 전망됐다. 하반기에는 삼성 갤럭시노트3, LG 옵티머스G2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특히 미국경제 회복과 함께 IT제품과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연필뉴스>

기계업종은 중국시장에서 굴착기 등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어 대중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업종은 상반기에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으로 작년보다 5%의 생산차질이 발생했으나 하반기에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돼 '구름조금'으로 나아졌다.

미국과 신형시장의 성장세로 수출은 상반기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통상임금, 주말특근, 사내해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요인은 하반기 생산차질의 압초가 될 전망이다. 섬유·의류업종도 한·미, 한·터키 FTA효과 가시화로 수출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세일가스 개발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정유업종은 하반기에도 흐림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인도에서 등 동남아시아의 경제시장이 확충됨에 따라 수출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에 한몫했다. <연필뉴스>

금호고속 목포~고양 노선 신규개통...매일 1회 운행

금호고속이 1일부터 목포~고양 직행 노선을 신규 개통한다.

목포~고양 노선은 매일 1회 운행하며 중간에 영광을 경유한다. 목포에서 오전 8시50분 출발, 9시50분에 영광을 경유한 뒤 오후 1시40분에 고양에 도착한다. 고양~목포 노선은 고양에서 오후 2시30분에 출발, 오후 6시20분에 영광을 경유한 뒤 오후 7시20분에 목포에 도착한다. 목포~고양 노선의 총 운행시간은 4시45분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552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1 10 20 32 35 40 43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30,824,22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9,289,787
3 5개 숫자 일치	1,226,793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룬완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도(하루) 100석	취회(하루) 100석	미취회(하루) 100석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ona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010-6603-040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